

# 나의 시간

히로시마조선초중고급학교 고급부 3학년  
박상혁

신형코로나비루스로 인하여 일본각지의 우리 학교가 임시휴교가 되어 벌써 두달이 지나려고 합니다.

지난 3월 초하루에 졸업식을 끝내고 이제 우리가 최고학년이 될 준비를 하려고 하는 2학년의 마지막 기간을 학교에서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입생들이 들어오는 4월에도, 기숙사생인 저는 학교에 못 가고 입학식, 시업식에도 참가하지 못한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아까운 시간을 우리는 집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까운 시간을 어떻게 지내는가에 따라서 의미있는 시간으로도 바꿀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자신은 우선 학교에서 제기된 학습과제는 물론이고 여러 동영상을 보면서 학습도 계획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미 온라인수업준비가 되어있어 3월의 임시휴교기간에 들어 곧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셨습니다.

비록 동무들과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매일 아침 온라인학급모임과 온라인 수업에 참가하여 선생님들과 동무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렇게 긴 시간을 집에서 보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 고3인 우리의 마지막 학교생활의 한달, 두달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억울했습니다.

그럴수록 이 기간을 아깝게 지내지 말고 무엇인가 하나라도 목표를 세워 생활하면 이후 학교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이렇게 자신을 다잡고 생활할수 있는것도 온라인이라도 정상대로 수업을 받고있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지내면서 절실히 학교의 중요성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동무들을 만나고싶고 선생님들의 수업도 직접 받고 소조활동도 마음껏 하고싶은데 만일 우리 학교가 없었다면 우리의 희망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 학교가 중요하다는것을 마음속으로부터 느끼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빨리 학교에 가고싶고 귀중한 하루하루를 이렇게 집에서 보내고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이렇게 지내야 할지는 모르지만 이 기간을 어떻게 지내는가에

따라 남은 고급부 학창생활이 더 의미있는 나날이 된다고 믿으면서 시간을 아껴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착실히 해나가자고 합니다.